

# “깨달음은 아상 ‘떨어내는 공부’에서”

### 관음종 국제학술대회,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불교의 가장 큰 화두인 ‘깨달음’에 대해 각 불교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고찰할 자리가 마련됐다.

관음종은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10월 10일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깨달음’에 대해 학자들이 인도철학, 초기불교, 인도불교 및 티베트불교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 논문 25편이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무명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알’이라고 알지만 사실 ‘실천’의 미한다”고 강조했다. 홍파 스님은 이어 “실천을 통해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며 “참 나를 찾으면 인생의 굴곡과 부침에서 부귀영화를 초월해 지혜롭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연을 짓는 것이 수행인의 본분”이라며 남은 생애동안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홍파 스님이 내 놓은 깨달음 총론 20여 편의 불사는 한국불교 내부적으로 학문기관에서 행

해져야 했지만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며 “논종은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불자들에게 이정표와 좌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행사는 우리 불교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불교정신을 더불어 살펴보는 자리로 뜻깊다”

### 불교시대사 따른 논문 25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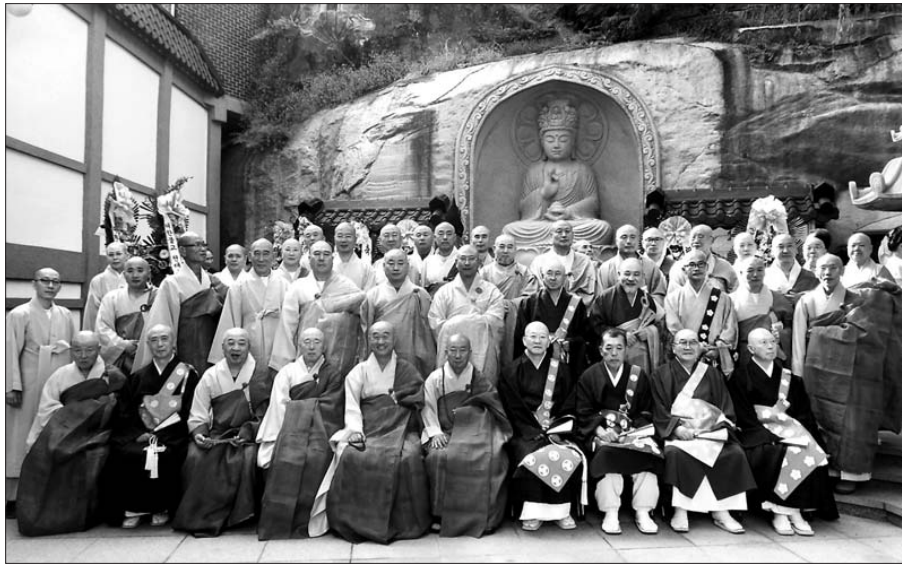
### 홍파 스님 50년 회고록도 출간

### 국내외 석학 등 300여명 운집

며 “한중일 불교가 우리 삶에 더 다가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찾으며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구 前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은 “한국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깨침과 깨달음의 선각 풍토를 지니고 있다”며 “불교의 사회적 참여 등이 조화된 현대 불교의 모습은 한쪽의 심우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성배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 불교학교수는 미리 보낸 축사문을 통해 “‘깨달음’은 어둠을 쫓아내는 밝음이란 뜻을 갖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은 태양이 일체 차



10월 10일 서울 낙산 묘각사에는 불자 300여명이 모여 ‘깨달음’을 주제로 활발한 논쟁을 펼쳤다.

별을 넘듯이 천하만물을 고루 비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깨침은 ‘깨다’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이는 다시 돌아갈 아성이 없어졌다는 말”이라며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공부’가 무엇인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아집과 아상을 공고히 하는 ‘보태는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 버리는 ‘떨어내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후학들을 독려했다.

이어 학술세미나에서는 권기중 동국대 명예교수, 이광태 충남대 명예교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신규탁 연세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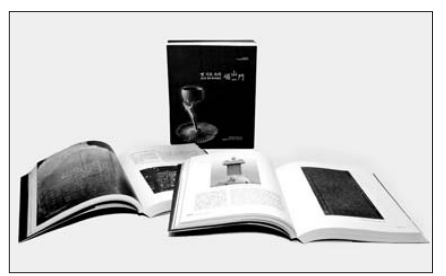
수 등 30여 학자들이 나서 △제1부 인도철학의 깨달음 △제2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의 깨달음 △제3부 인도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 △제4부 삼론·선·전대·화엄·정토의 깨달음 △제5부 한국불교의 깨달음 △제6부 대승기신론의 깨달음 △제7부 현대불교의 깨달음 △제8부는 해외 특별기고 등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조명했다.

한편, 10월 9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홍파 스님의 50년 회고록 <바람따라 물결이네>와 학술발표 논총집 <깨달음 총론> 봉정식이 있었다.

노덕현 기자

## 중원문화재연구원, <옛 기록 속의 굴산문> 발간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산지에 관련자료가 집대성됐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최근 강릉 굴산사지(江陵 &#23835;山寺址) 학술조사연구 사업 결과물로 문헌자료와 금석문 속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굴산문(&#23835;山門)에 관해 분석한 <옛 기록 속의 굴산문>을 발간했다.



<옛 기록 속의 굴산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굴산사지에 대한 학술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옛 기록 속의 굴산문>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류와 금석문, 각종

문집, 사적기 등에 실린 굴산문에 관한 기록들이 발췌돼 실렸다. 강릉 굴산사는 신라 하대에 형성되어 지방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굴산문의 본산으로 고려시대까지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교평론, 불교와 심리학 열린논단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소장 허우성)는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심리학, 서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논단에는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특별기고 등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조명했다.

한편, 10월 9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홍파 스님의 50년 회고록 <바람따라 물결이네>와 학술발표 논총집 <깨달음 총론> 봉정식이 있었다.

노덕현 기자

등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학술원 우수도서),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학술원 우수도서) 등이 있다.

불교평론 측은 “불교의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의 접합점을 모색하고, 방법론의 차이, 보완점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 40년 맞은 한국불교학회, 불교학 결집 이끈다

### 11월 9일, 동국대에서 창립 40주년 맞이 학술대회 개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불교학 결집을 위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100여 불교학자들이 불교학 연구의 모든 영역을 접목하고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9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에서 ‘결집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모두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과는 인도·남방불교다. 김성근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초기불교(황순일·조준호), 부파불교(박창환·권오민), 중관학(남수영·문음식), 유식학(김치온·최종남), 인도불교사·남방불교사(안양규·정준영) 등이 나선다.

제2분과는 응용불교로 제1분과와 학명 세미나실, 문화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광태 충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불교와 비교종교학(한성자·최종석), 불교

와 서양철학(성정환·이희재), 불교교육학(정혜정·황옥자), 불교미술사(정우택·박은경), 불교와 문학(강도업·이성운) 등이 진행된다.

점심 이후 학명세미나실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식도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로패 전달과 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 국내 불교학자 100여 명 총결집

### 응용, 중국, 남방, 한국, 실천 5개 분과

### 52개 세부 연구영역 발전방향 점검

이어 기초강연이 진행되며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3분과는 중국·티베트 불교로 좌장은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중국불교사(계환 스님·권기중), 전태학(이병우·정문용), 화엄학(석길갑·임상희), 정토학(김

영진·최동순), 밀교·티베트불교(김영덕·장익) 등이 발표된다.

제4분과는 한국·일본불교로 좌장은 최유진 경남대 교수다. 삼국-신라불교(고영섭·남무희), 고려불교(이철현·최연식), 조선불교(김용태·이중수), 한국근현대불교(김광식·김순석), 일본불교사(원영삼·배경아) 등이 발표된다.

제5분과는 실천불교로 좌장은 성운 스님이다. 계율학(신성현·민백공), 선학(혜원 스님·박재현), 불교여성학(조승미·송현주), 불교와 사회과학(이재수·조기풍), 불교사회복지학(이혜숙·이연수) 등이다. 모든 분과 발표 이후 동국대 상록원에서는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40주년 축하연도 진행된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장은 “연구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현대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세계화 전략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대한불교진흥원, 제5회 원효학술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제5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 사상 연구부문을 비롯해 동서양의 사상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에서 본 동서양 사상으로 최근 5년 이내 발표 논문이나 저술을 응모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전임 강사 이상 교수와 박사 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박사과정 학생이다.

저서는 2부, 논문(별쇄본)은 3부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한다.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8년 1월 1일~2012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저서는 ISBN 등록본).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2014년 4월 중순 경 심사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02) 719-2606

## 데미온 키온 교수 초청 워크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인문학연구소는 10월 21~23일 불교 윤리학의 세계적 대가인 데미온 키온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집중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강대 본관 5층 사이버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집중 워크숍에서는 △서구에서의 불교 △불교윤리학 △불교와 전쟁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불교문화연구소는 “불교의 교리들이 전쟁과 폭력 같은 현대사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지, 또 불교가 21세기에 어떤 문제점들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지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중요목조문화재 단청 조사 진행

중요목조문화재인 단청(丹青)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7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장식된 단청의 현황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훼손 될수록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단청을 정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대상은 중요목조문화재 138종이다. 이 가운데 올해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범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등 4동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국보 제15호인 봉정사 극락전과 국보 제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 등의 고려시대 건축문화재의 건립 당시 단청은 완전히 퇴색된 상태이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나 밀그림 또는 다시 채색한 흔적은 적외선촬영을 통해 원형정보를 확인 후 진행한다. 이외에 사료조사, 3D 스캔, 안료분석, 채색조사, 문양모사, 원형모사도 작성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대한불교원효종

##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수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종회법 제 3조 다음과 같이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각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 수를 공고 합니다.

교 구	배정 의석수
서울	2
강원	2
대전	2
충북	1
전북	1
전남	2
경북	3
울산	4
경남	2
부산	4
제주	2
계	25

## 종회의원 선거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 합니다.

종회법 제6조 의거 각 교구 선거위원회의 구성  
● 일시 : 2013.10.11(금) ~ 2013.10.21(월)

종회법 제7조 의거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 일시 : 2013.10.22(화)

오전 9:00 ~ 2013.11. 5(화) 오후 6:00  
● 장소 : 각 교구 선거위원회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의거 종회의원 전형  
● 일시 : 2013.11. 6(수) ~ 2013.11.13(수)

종회법 제10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부 판정  
● 일시 : 2013.11. 14(목)

종회법 제11조, 제12조 의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공고  
● 일시 : 2013.11.20(수)

2013. 10. 10

선거관리위원장 : 우석  
선거관리위원회 : 자성, 선법, 해운, 원해